

남가주 한인교회, 주일예배 온라인으로 전환

“예배 취소 아니라, 예배 장소 일시적으로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기는 것”

캘리포니아 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응이 강화되는 가운데 남가주 한인교회들도 주정부의 권고에 따라 이달 말까지 주일예배를 포함한 주중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는 교회가 정한 프로토콜에 따라 현 상황을 심각 단계로 판단하고 오는 31일까지 주일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을 당분간 취소 혹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교회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 생방송으로 송출할 예정이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예배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활용할 계획이다.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역시 이달 31일까지 주일예배를 포함한 모든 공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교회는 주일예배와 토요 렘



왼쪽부터 노창수 목사, 김우준 목사, 백정우 목사, 임승진 목사, 우영화 목사.

시바 새벽 기도회, 수요일씀예배 등을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자녀들을 위한 온라인 예배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새벽 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매일 영상을 제공하고, 온라인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셀모임 방법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남가주 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동양선교회(담

임 김지훈 목사),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충현선교회(담임 민중기 목사), 동부 사랑의교회(담임 우영화 목사), 나성 영락교회(박은성 목사), LA 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 미주 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 토렌스 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 인랜드교회(담임 안환 목사), 남가주 동

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등도 이달 말까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방침이다.

노창수 목사는 “교회는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사회의 공공 안전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창수 목사는 “이 기간 세상의

로부터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가 사회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노력하길 바란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영적으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준 목사는 “예배가 본질이고 장소는 비본질이다. 예배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장소가 일시적으로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기는 것”이라며 “3월 한 달이 그쳐 버려내는 시간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들이 깊게 교제하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예배의 감동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3면에 이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국가 기도의 날’ 선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대처하기 위해 주일인 15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3월 15일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언하게 돼 영광이다. 우리는 역사에 걸쳐 이같은 시기,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구해왔다”라며 “어디에 있던 믿음의 행동으로 기도하도록 권한다. 우리는 함께 승리할 수 있다”고 글을 남겼다.

지난 1988년 이후 미국에서는 3월 첫째 주 일요일은 매년 국가 기도의 날로 지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기도의 날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에 미 주택도시개발부(DHUD) 장관이자 신경외과 전문의 벤 카슨 박사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기도와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기도와 신앙에서 멀어져 있었다”며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이든, 이웃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돌보려는 경건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 주변 사람들에게 귀중한 가치를 제공하라.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주의자들이 결성한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마이페이스보우

츠(My Faith Votes)의 앨런 잭슨 목사와 테네시 주 넬슨 펠로우십의 로브 모건 목사는 ‘미국이 기도할 시간’이라는 타이틀로 공동 예배를 주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예배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 연방 정부 의무감이자 외과의사인 제롬 애덤스는 “언론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비판하기보다는 질병을 다루는데 중점을 두자”고 권장하며 “미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순위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TF 팀과 함께 14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백악관 공식 사진

세를 늦추기 노력하고 있다. 감염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완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유럽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영국과 아일랜드

로 확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여행 제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CP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0-0112, (323) 735-3180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기쁜우리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Senior Pastor Rev. Gyeong Jin Kim

2020 - 2021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3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Categories: i)General ii)PK & MK iii)Seminary

선발 인원 00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0@joyfulccc.org로 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ATTN: Scholarship Committee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P.O. Box 270, Glendale, CA 91209

선발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2020년 3월 15일 ~ 4월 26일
- 선발 결과 발표: 2020년 7월 12일 예정
- 장학금 수여식: 2020년 8월 중순 예정 (추후 발표)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올해 남가주 부활절 연합예배 각 교회별 진행될 전망



지난해 남가주교회 연합 주관으로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진행된 LA 지역 부활절연합예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시에서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권고한 가운데, 남가주 한인교회 연합 부활절 행사도 취소되거나 각 교회 차원에

연합예배는 취소됐지만 더욱 깨어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올해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를 보류하고 월례회

서 진행될 전망이다. 사우스베이 목사회(회장 장경일 목사)는 "미국 내 대부분의 공적 모임이 취소되고, 학교도 임시 휴학을 선포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의 취소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경일 목사는 "연합예배는 취소됐지만 더욱 깨어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올해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를 보류하고 월례회

나 다른 행사들도 모두 연기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부활절 예배는 각 교회별로 진행된다. 박상목 목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의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재난 이후에 복음의 계절이 나라 피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다"며 "모든 사람을 성령께서 지켜 주시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벨리지역교역자협의회(회장 하모세 목사), LA동부교역자협의회(회장 최준호 목사), 벤츄라 교역자협의회(회장 김진구 목사)도 마찬가지로 금년 부활절 연합예배는 드리지 않고 각 교회별로 모이기로 했다. 인랜드교역자협의회(회장 이희철 목사), 중부지역교회협의회(회장 이희성 목사)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연합예배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희성 목사는 "이달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의논을 더해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올해 모임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김동욱 기자

기고

코로나19, 서로를 향한 배려의 마음 절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온 세상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가 극복된 후에도 그 후유증이 한동안 지속되리라 점입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와 신전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건강한 신자/교회들에게까지 의심과 편견의 눈초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계 내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지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들로 인해 더욱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주일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드려야 하느냐 또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려야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서로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칫 또 우리 기독교계를 오래도록 분열하게 하는 아픈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서로에 대해서는 긍휼

과 자비 그리고 배려의 마음을 갖는 것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의심과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 서로를 위해 따뜻하게 나아갑시다. 동시에, 고난과 환난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연단의 통로가 되어서 더욱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교회와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런 결단과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와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위기를 돌파한 후, 오히려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더욱 신자다워짐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류준영 목사

[1면 "남가주 한인교회...주일예배 온라인으로 전환" 이어]

백정우 목사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향한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믿음으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역 사회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다"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임승진 목사는 "주정부의 권고 사항에 따라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온라인 예배를 시행하게 됐다"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영화 목사는 "기도가 절실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삶을 단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흠어진 가정에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250명 이상의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권고한데 이어, 12일 LA 에릭 가세티 시장은 50명 이상의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가세티 시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주내 모든 술집과 나이트클럽, 식당을 일시 폐쇄하고, 가능한 집에 머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토론토 백송교회 배성연 목사 취임

지난 15일 배성연 목사가 토론토 백송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 배성연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영어 전공 후 서울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를 졸업하고 한국 인선백송교회(담임 이순희 목사)에서 사역하다 토론토 백송교회로 부임했다. 배 목사는 "이민생활로 인해 고단한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이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리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며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양의 균형을 이뤄 성도들이 영적인 필요에 굶주리지 않도록 영적 양식 공급에 힘쓰는 교회가 되겠다"고 목회 계획을 소개했다. 배 목사는 이어 "영적 스승이신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배운 '나는 죽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



토론토 백송교회 배성연 목사 취임 감사예배

이 드러나도록 전심을 다하여 사역하겠다"며 "한국 백송교회의 영성을 잘 이어받고 토론토에서도 목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취임예배는 김종규 목사의 사회로 정동희 목사의 기도 후

최유민 목사가 "그 사랑"(요21:15-1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진 취임식은 서약과 치리권 부여, 공포에 이어 김병근 목사가 권면과 축사를 전했다. 정동희 목사의 광고 후 배성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 비영리단체 등록
- ▶ 특별
-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1ST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Now Enrolling

(213) 487-5437 | www.e-nca.org | info@e-nca.org

투산영락교회 제4회 후원 선교사 초청 선교사대회 개최



제4회 투산영락교회 후원 선교사 초청 선교사대회 기념촬영



제4회 투산영락교회 후원 선교사 초청 선교사대회에서 선교사들이 선교지 소식을 나누고 있다.

투산영락교회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교회가 후원하는 총 9개국 19명의 선교사를 초청해 제4회 투산영락교회 후원 선교사 초청 선교사대회를 개최했다.

2014년 제1회 선교사대회를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선

교사 대회는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를 통해 생생한 선교 현장의 소식을 접할 뿐만 아니라, 각 목장(구역)별로 후원하는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멀게만 느껴지는 선교가 아니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선교 나눔의 시간이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멕시코(4개

지역)를 비롯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미국 등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참석해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선교대회에 선교사 자격으로 참석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명 총장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선교 지향적 신학

교육을 추구하며 교육 선교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선교사 대회를 통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투산영락교회는 현재 멕시코 5개 지역,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미국 인디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등 13개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으며 점차 후원 선교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 구원 역사가 이어지길 소망해”

주님세운교회 임직예배 총 18명 직분자 세위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는 지난 15일, 임직 예배를 드리고 장로 2명, 안수집사 8명, 권사 8명 등 총 18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박성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 감사하다”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으로 결단하는 임직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권면했다.

이날 임직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요 8:29)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김인식 목사(해외한인장로회 증경총회장)는 “교회의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건물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지탱하고 든든히 세우는데 쓰임 받는 직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인식 목사는 이날 임직 받은 직분자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상황에서도 겸손하라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라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라 ▷돈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등 교회 직

분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를 주문했다.

설교에 이어 김정자 장로가 축가, 강진웅 목사(해외한인장로회 서노회 노회장)가 권면과 축사를 전했다. 한편 임직자 대표로 이종임 장로가 답사를 전했다. 한편 주님세운교회는 이날 현금 4,540달러를 본국 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임직자 명단〉

- *장로: 권오성, 이종민
- *안수집사: 김동현, 김두일, 김보오, 김성재, 유은애, 이재현, 장창식, 최돈송
- *권사: 김자순, 김카니, 김향희, 오유니, 오윤신, 이영애, 정캐디, 홍명순



주님세운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 기념촬영

‘굽주님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굽주님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교수(성신대 영예교수), 이종희교수(에스대 대표), 송정영목사(복음번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중앙대), 신정원목사(동일대), 유관지목사(동일대),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를 주면 발송 가능합니다. \$20 / 권당 + \$5 우송료

박성규 목사 책의 권자

지급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님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극성도들의 순교정신으로 기록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록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크레디트: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계공제회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동역사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이벤트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성이 있는 차가 무렵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면 리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고 리스도~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건강 보험료 부담은 확실하게 덜어드리고 혜택은 골고루 받는 아주 괜찮은 헬스케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주 벌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ltrua HealthShare

프로그램	Complete (컴플릿)	Super (수퍼)	Essential (에센셜)
1인	\$220.00	\$165.00	\$50.00
2인	\$440.00	\$330.00	\$100.00
3인	\$660.00	\$495.00	\$150.00
본인부담금	\$500/year	\$500/year	\$7,500/year
지원금	\$2 Million	\$1 Million	\$150,000
지원내용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입원, 수술 건강검진(\$1,000)	의사비, 검사비, 치료 응급실, 입원 건강검진(\$500.00)	응급실, 수술, 입원

Altrua는 1995년에 설립된 비영리 선교단체로서 그동안 수만의 회원들의 의료비 지원을 해온 건설한 단체입니다. 이번에 한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국 회원들을 위해 더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한달에 \$165로 최고 1백만불까지 지원, 의사방문, 검진, 검사, 입원, 수술까지 해결!

- ☑ 의료비 신청 본인이 하지 않음
- ☑ 각 플랜: 응급실 사용 가능
- ☑ 한국 병원에서도 혜택
- ☑ 비 흡연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64세까지)
- ☑ 장례비 보조
- ☑ 그룹 플랜도 가능

·한인지원센터의 상담원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인지원센터

Tel: (714)738-1234 Fax: (714)738-1238
251 E. Imperial Hwy #410 Fullerton, CA 92835
email: info.primeh4@gmail.com

문의: 티나 정 (tchong.prime@gmail.com)
그룹문의: 스티븐 정 (schong.prime@gmail.com)

*Prime.ahs.family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 및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교부흥을 회복하라 #149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연합기도이다”

실로 전쟁터이다. 온 세계가 적국이 따로 없이 하나가 되어 인류를 죽음의 길로 몰고 있는 전염병과의 전쟁을 하는 중이다. 코로나 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온 세상이 얼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중에 교회와 성도들은 또 하나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것은 세상이 교회의 모임을 폐쇄하며 교회의 선교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유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모든 조치가운데 있음을 안다. 그런 모든 조치와 현 상황의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기에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이 난국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연합 기도운동이다. 10명 이상의 모임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연합 기도이다. 필자는 지난 주일(3월 15일)부터 적어도 이 미국은 영적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대통령이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전 미국 국가 기도 주일”을 선포하였고, 미국 안에서 예배드린 모든 교회는 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한 전염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퇴치되기를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사순절 기간이다. 사순절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오직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그분께 집중해야 할 기간이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더욱 강하게 일어나야 하고 사병자들이 더욱 강하여져서 온 열방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예수님에게 향해야 할 마음을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에게 다 빼앗겼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이 있다. 곧 승리의 날이 온다는 믿음이 있다. 처음엔 견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밀려가는 모습이었으나 점차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각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며 연합의 기도가 세워지고 온 세계의 교회가 기도로 연합하면서 영적 전쟁의 승기를 역전시키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 내는 기도의 골방을 세워야 하겠다. 연일 무시로 각자의 골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도한다. 불신앙에 빠졌던 영혼들이 이번 코로나 전염병의 위기를 통하여 이 난관을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영적 대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모든 병마 그리고 악한 세상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광파르를 부를 것이다.

교회의 문도 걸어 잠그고 모이기를 폐하는 이 난국의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만나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자. 선교의 문이 닫혀진 이 시대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연합 기도의 힘을 기르자.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것이다. 사망이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과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 하늘 문은 어느 때고 열려 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연합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병하는 전염병의 기세가 강할수록 그 병을 진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영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하여 이 땅에 남아 있던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400여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성령의 바람이 확산되어 복음의 꽃이 피는 역전의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하자.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외치고 부르짖고 선포하자. 우리는 승리한다고 아니 승리했다고.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0)

난관을 극복하라!

2016년 6월 26일 코파 아메리카(남미 축구선수권)의 결승전에서 세계 최강 아르헨티나가 칠레에 패배했습니다. 결승전은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승부차기 1번이었던 메시가 실축했고 결국 아르헨티나는 2대 4로 패배했습니다. 세계가 놀랐고 아르헨티나 국민과 대표팀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메시는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이후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위시한 온 국민들이 메시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중에 어느 초등학교 여교사가 보낸 공개편지가 화제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축구 팬이 아닌 한 사람의 선생님으로서”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떻게 극복하며 성장했는지를 봐 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서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했다는 사실을 알려 줘요.”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국가대표 은퇴를 만류한 것입니다.

에 약 1000달러가 드는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메시는 축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가 축구를 포기하려 할 때 그의 가능성을 인정한 스페인 명문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만약 메시가 스페인으로 건너 온다면 치료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메시는 2000년 가족과 함께 스페인으로 건너와 바르셀로나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13살에 140cm이 채 되지 않았지만 치료와 노력으로 169cm까지 자랐습니다.

메시의 은퇴 소식에 그의 영원한 라이벌인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메시가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날두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라이벌 메시지를 동료로 존경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역시 어린 시절 어려움을 극복한 축구 스타입니다. 이런 점에서 두 스타는 닮은꼴입니다.

호날두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형은 마약에 빠져있었고, 어머니가 청소년부로 어렵게 번돈은 아버지 치료비로 다 쓰다 보

니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에게 축구는 유일한 놀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축구공이 없어 양말, 빈 강통 등을 차면서 축구 기술을 익혔는데 그의 화려한 기술은 강통을 자유자재로 다루다가 완성되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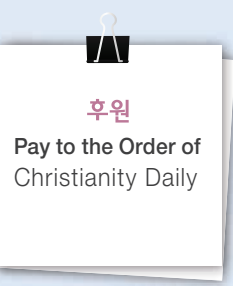
그러나 호날두도 축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15세 때 프로축구팀 입단을 위한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심장 박동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 발견되어 구단에서 조심스럽게 축구를 그만둘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날두는 그 제안을 거부하고, 수술대에 오릅니다. 이후 혹독한 훈련을 이겨냈고 그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더욱 강화됩니다. 난관 극복이 행복입니다. 필자가 애송하는 시입니다. “인생은 평화와 행복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고난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참고 견디며 이기어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희망은 언제나 고난의 언덕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 맨스필드의 “인생”이라는 시입니다. 인생의 희망(행복)은 고난의 언덕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희망은 고난을 넘어서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위해 고난의 언덕을 넘어야 합니다. 금번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넘어야 할 고난의 언덕입니다. 이 난관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광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개월 후에 코로나가 극복된 후에 환한 얼굴로 함께 웃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피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어든다.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신천지의 교회 침투 전략과 추수꾼의 특징

가정과 사회 무너뜨리는 신천지 뿌리 뽑자(2)

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사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신천지의 문제는 비단 본국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특별히 미주에서는 남가주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는 신천지로 인한 피해는 남가주 한인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지는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한선희 목사로부터 신천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신천지의 실체와 이단성을 살펴보고 남가주 한인교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가주 지역 신천지 피해 관련 제보를 받습니다. -편집자주

한선희 목사

◇약력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장
미주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세계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장
세이먼 상임위원, 사무총장



기성교회에 침투한 신천지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신앙에 관해서는 숨기면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봉사하는 사람 △갑자기 교회에 나타나 열심히 봉사해서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거부할 수 없도록 사랑과 관심과 호의를 베푸는 사람 △성도들과 만나 목사에 대해 은근히 불만을 터트리며 목사의 성경 지식에 회의하게 하는 사람 △목사에게는 숨기면서 교회 밖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사람 △거짓을 모략이라고 포장해서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람 등이다.

신천지는 1980년대에서 2천 년까지 1만 명이 되지 않던 신천지는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고급 3개월 등 총 9개월을 거쳐 성경공부를 가르치면서 정통교회 성도들을 신천지교회로 데려갔다. 이것이 2천대 중반까지의 신천지의 전도전략이었다. 이렇게 해도 정착률이 50%밖에 안됐었다.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2천대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천지는 새로운 전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가장 중시하는

방법이다. 먼저 4-5개월 동안 인간 관계를 맺어간다. 기성교회에 침투한 신천지인을 통해 우연을 가장하고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인간관계를 맺고 마음을 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의 일지로 만난 사람이 지나치게 나에게 잘해주면 다시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한다. 신천지는 이렇게 4-5개월 동안 인간관계를 맺은 후 신천지 성경공부를 하도록 유도하는데, 그것도 성경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하여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왔으니 한번 듣고 가라는 식으로 유도한다.

신천지는 정통교회 교인들이 교육장으로 끌고 오면 세뇌 교육을 시작하는데 처음 교육받는 사람에게 이만희가 보헤사 성령, 구세주, 재림주라고 가르치면 당연히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가지 비유를 시작으로 인간관계 형성 4-5개월, 신천지 교리 3개월 동안 세뇌교육을 실시한다. 그것이 끝나면 '추수꾼'과 '추수밭'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 신천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신천지에 빠진

것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 신천지 정착률이 거의 100%인 이유다.

이단 신천지에 대한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신천지에 넘어가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1년 동안 신천지인 줄 모른다. 그러다 1년 후쯤 신천지임을 알아도 세뇌받은 성경공부 때문에 신천지를 떠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신천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 유발

신천지가 정통교회 성도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정통교회에 반감을 갖게 하는 멘트는 다음과 같다. >창세기 1장 - 천지창조의 역사가 6000년 밖에 안 될까? > 창세기 4장 14절, 17절 가인과 아벨이 첫 자녀라면 누가 가인을 죽일 수 있는가? 가인이 결혼을 했는데 동편 못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인가? >마태복음 24장의 재난의 징조, 환란에서 도망갈 산, 아이 벤자, 젓 먹이는 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마태복음 25장의 등과 기름의 비유를 아는가? > 마 13장 비유의 뜻을 아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재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등이다.

신천지가 성경 공부할 때 정통교회는 지식이 없고 말씀이 없다고 강조하고 신천지가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유도하는 주요 멘트는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가?" >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 호세아 6장 3-6절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를 아는 것이다".

또 신천지는 성경공부를 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회유하며 성도들을 정통 교회와 가정, 친구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킨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의 특징

신천지에 빠지면 꾸준히 교회를 출석하던 성도가 갑자기 목회자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또 뚜렷한 이유 없이 얼굴에 기쁨이 없어 지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목사와 얼굴을 마주치기 부담스러워한다. 줄곧 앞자리 앉던 사람이 뒷자리로 옮겨 앉는다.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방향에 이유 없이 불만을 드러내고 정통교회 설교와 성경공부를 비하한다. 신천지 성경공부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결석하기 시작하고, 몇 개월간 교회와 연락이 단절됐다가 신천지 포교를 위해 갑자기 나타나 충성하기 시작한다.

추수꾼이나 산 옮기기를 목적으로 새신자로 위장해 정통교회에 접근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신천지 신도들은 자신의 집이나 개인 연락처를 잘 가르쳐 주지 않고, 허위로 둘러대는 등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유독 교회 봉사에 충성을 보인다.

이들은 설교에 대해 은근히 불만을 터트리며 목사의 성경 지식을 비판하고 특별히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갑자기 열심히 충성하여 두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신천지 규모 해외 6천5백 명 이상, 미주에만 2천 명 이상

신천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24만 명의 신도가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해외에도 지부를 만들어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시카고, 휴스턴, 알래스카, 조지아 등지에 2

천여 명의 신도를 두고 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 신천지를 비롯해 일본, 캐나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에 6천 500백 명 이상의 신도가 활동하고 있다.

-신천지에 의한 피해 사례

신천지의 비신앙적이고 비양심적인 포교활동은 가족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성해 가정파괴의 주요 원인이 된다. 전도유망한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지면 학업을 포기하고 젊은이들은 직업을 갖지 않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포교활동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다. 또 '수년 안에 종말이 온다'는 그릇된 종말론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자신의 삶을 쉽게 내던진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신천지 포교활동과 세뇌교육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피해자 가족이 신천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면 피해자에게 가혹을 종용하거나, 가족관계를 끊을 것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부모 곁을 떠나 숨어 살기도 하고 부부의 신앙 갈등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 가정 주부들의 가혹은 물론, 신용불량자 양산, 한국에서는 신천지 신도인 아내로부터 포교를 강요받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신천지는 신천지 신도뿐 아니라 고발자와 탈퇴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천지 탈퇴자나 고발자들을 납치하거나 감금, 폭행, 교회 방해 등 사회가 규정한 법을 이탈해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에 반하면 무자비한 테러도 서슴지 않는다.

신천지 홈페이지: 전도관, 장막성전

신앙적 야비

- 1948년 서울 침례교 외국선교사에게 믿음 없이 침례를 받음
- 1957년 고향 땅 이외에서 성령으로부터 환상과 이력과 계시를 따라 전도관에 입교
- 1967년 성령의 계시에 이끌려 경기도 과천시 소재 장막성전에 입교
- 1980~1983년 계시록 1장 17-20절과 같이 예수님께 안수받고 일곱 교회에 편지하였으며 장막성전에 침노한 니골라당과 싸워 이김
- 1984년 3월 14일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따라 (출25장의 모세와 같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창설하고 새 이스라엘(이긴자) 12지파를 창설함

"총회장님께서도 학교나 신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목사와 신학박사, 신학 교수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인사들도 신천지에 나와서 성경 지식을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하고 있듯이 이만희는 학교나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중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종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호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l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HYUNDAI Spring sales event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 가능

SPRING SPECIAL SALE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ONATA SE

Lease **\$188** +Tax **0 Down** **\$26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3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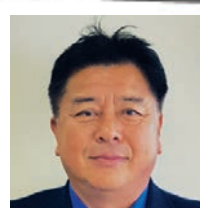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美 대형교회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검사 위해 장소 제공

하루 500명까지 검사, 결과는 72시간 내에 통보



하일랜드교회.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대형교회인 하일랜드교회(Highlands Church)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장소를 제공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앨라배마 하일랜드교회는 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그랜드뷰 멀티캠퍼스를 개방했다.

앨라배마에 소재한 크라이스트 건강센터(Assurance Scientific and the Christ Health Center)와 교회의 협력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기침이나 열 등의 증상이 있는 이들은 이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일랜드교회는 웹사이트에 성명서를 통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제퍼슨 카운티 보건부와 협의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키트가 국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기침이나 열 등의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는 하루에 500명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는 72시간 내에 통보된다.

크라이스트 건강센터와 하일랜드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중 보건을 위해, 방문자들은 반드시 창문을 올린 채로 차량에 머물러야 하고,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또 검사를 받은 자들은 누구나 음성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현장에서 검사를 받은 이들에게는 보험사나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등으로부터 보험이 청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이 없는 이들을 위한 펀드도 마련됐다.

교회 측은 “나이가 많거나 유전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은 사람들이 많은 모임을 피하라”고 권면했다.

하일랜드교회 크리스 하지스(Chris Hodges) 목사는 온라인으로 주일예배 설교에서 “교회 대표자들이 보건 당국과 시장들을 만나 교회가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의 도시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 이웃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사람들은 낙담하고 있다. 이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심각한 것이고 실수해선 안 된다. 이것은 세계적인 유행병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하일랜드교회는 지난 2016년 카하바 그랜드 콘퍼런스 센터를 구매해 14번째 캠퍼스인 그랜드뷰를 개척했다.

강혜진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美 대형교회 목회자들

“국가 위해 기도... 고통에 처한 이웃 도울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미 보건 당국은 대규모 모임을 자제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미국 교회들도 오프라인 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 15일 6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특별메시지를 전하면서 “교회가 어둠을 비추고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며 “불안한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맞서 싸울 희망과 격려를 줄 수 있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열린 문”이라며 “국가를 둘러싼 현재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어둠을 밝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의 그렉 로리 목사는 지난 13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 메시지를 전하며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오프라인 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를 생중계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좌에 계신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예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이웃에게 온라인 예배를 함께 시청하기를 권유하라”고 독려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락처치(Rock Church) 마일스 맥퍼슨(Miles McPherson) 목사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주일 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를 방송한다고 발표했다.

맥퍼슨 목사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특별 영상메시지를 통해 “교회가 시민들의 안전을 돕기 위해 지역 사회를 강화하는 동시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하나님께서 치유와 평화를 가져오실 수 있도록 도시와 국가를 위해 계속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테네시 주 월드 아웃리치 교회(World Outreach Church)의 앨런 잭슨(Allen Jackson) 목사는 기독교 NGO ‘마이페이스보우즈(My Faith Votes)’와 도널슨 펠로우십의 톰 모건 목사와 함께 ‘미국이 기도할 시간’(America, It’s Time to Pray)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잭슨 목사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중요한 순간과 미국인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경수업을 논의 중”이라며 “우리는 안전하다. 당황하지 말라. 세계 최고 의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환자는 141개국에서 152,000건이며 5,7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현재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천 7백명이 넘어섰다.

이미경 기자

교회 및 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림 손길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 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아침예배 오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2부예배 오전 9:45(토) 새벽예배 오전 6:20(토)
3부예배(자세대)예배 오전 11:30 *한양사각각 예배 15분 전
대학철신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기장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 588-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4차선)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유초등부 오후 10:30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0:50 중보기도(목) 오후 1:00
원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음+4)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 오후 7:00
유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

노영호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향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 오후 7:30
영유아부 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유저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에은장로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영향기상 7:21)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 오후 8: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리셋에델민예배(소매매일)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도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이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저녁 8:00
유저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청년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선교와 진리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 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cj.church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모임과 민회부 지역 연합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박효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213) 381-9490

곽부한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영아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았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정동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말씀)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의 새 생명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이중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유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참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토) 汉语: 星期二晚上七点半,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토) 汉语: 星期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최승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00(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령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말씀(다독이)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토)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BM 오전 11:15(교육관) (Blended Service) 사일부 오전 8:45(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입니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45 절연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18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918-333-837-8960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말씀)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경기도, 종교집회 제한명령... 7가지 예방수칙 제안

3월 29일까지, 7개 수칙 미준수 교회에는 '전면금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밀집 시설 집회 제한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5개 예방수칙 외 식사금지, 명단작성 등 2개 추가 기존 위반 137개 교회 소급 없이, 이후부터 시행 종교 자유 침해 아닌, 도민 생명·안전 위해 불가피

경기도가 끝내 종교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했다. 성남 은혜의강교회 등 경기도 내 3곳의 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17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월 29일까지 감염병 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에 밀집 시설 집회 제한명령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장 교회에 7가지 예방수칙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이를 미준수하는 교회에는 '전면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7가지 예방수칙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성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 수는 265명이다. 이 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수원 생명샘교회 확진자 10명, 부천 생명수교회 15명, 성남 은혜의강교회 46명 중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경기도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예배 방식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교회가 영상 예배로 전환에 협조했으며, 집회 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감염 예방수칙을 잘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137개 교회가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오늘 부득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밀집 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한 명령은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예배에 대하여"라며 "마스크 착용 등 7가지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금지된다. 집회 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교회에는 집회 전면 금지 조치로 강화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밀집 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종교집회 개최 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밀집 집회 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사하면 계속 나오는" 신천지 추가명단



권영진 대구시장이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정조사 결과 추가로 파악한 신천지 신도 명단과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BS 캡처

신천지 '두 얼굴' 어디까지... 대구서만 479명, 5개 시설 리스트 확인

대구시가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에 준하는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신도들 명단이 발견됐다. 신천지 관련 시설도 이미 폐쇄조치가 들어간 시설 외에 추가로 확인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조사 결과 2020년 1월 기준으로 신천지 12개 지파의 교인 수는 교육생과 중·고등학생, 유년부 신자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19만 3,953명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 중에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대대조파 교인 수는 1만 3,029명이고, 대구교회 소속 신도는 9,007명이다. 현재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구 거주교인 8,528명보다 479명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부동산 현황 자료, 재정회계대장, 증빙서류철을 분석한 결과 신천지 측이 임차료, 이용료 등 공과금을 지급하는 시설이 39개로 파악됐다고 권 시장은 밝혔다. 기존 이미 폐쇄종인 34개 시설 외에 5개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권 시장은 "5개 시설은 전도사부실 1곳, 동아리연습실 4곳으로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정조사 결과 추가로 파악한 신천지 신도 명단과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천지 '두 얼굴' 어디까지... 대구서만 479명, 5개 시설 리스트 확인 지역 거주 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 292명의 유년회 명단이 기존의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존 121명의 명단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절반 가까이가 새롭게 드러난 인원인 셈이다. 질병관리시스템 조회 결과 유년회 292명 중 208명이 검체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음성인 177명, 양성인 23명, 검사 결과 대기 중인 이들이 8명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84명에 대해선 검사 실시 등 추가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하고 있던 명단과 이번에도 대구시가 파악한 신천지 신도 명단의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교회 간부는 "명단 관리를 오래 하다 보니 최근 명단은 장부상으로 관리하지 않고 컴퓨터를 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부동산 현황 자료, 재정회계대장, 증빙서류철을 분석한 결과 신천지 측이 임차료, 이용료 등 공과금을 지급하는 시설이 39개로 파악됐다고 권 시장은 밝혔다. 기존 이미 폐쇄종인 34개 시설 외에 5개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권 시장은 "5개 시설은 전도사부실 1곳, 동아리연습실 4곳으로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정조사 결과 추가로 파악한 신천지 신도 명단과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천지 '두 얼굴' 어디까지... 대구서만 479명, 5개 시설 리스트 확인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가 15일 인터넷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꽃동산교회 유튜브

예장 합동 김종준 목사 “코로나19 끝나도 TV로 예배할까 우려”

주일예배서 가나안 신자 증가와 예배 붐괴 가속화 지적

예장 합동 총회장인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가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자”고 당부했다.

‘위로의 하나님(고후 1:3~7)’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김 목사는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수많은 인명과 경제적 손실로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하늘 길이 막히고 국제적인 경제활동이 끊겼다. 국내에서도 모든 경제활동이 정지되다시피 해서 소상공인들과 기업이 도산 직전에 놓였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교회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헌신할 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영적으로 심각한 침체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우리 시대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만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 난국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환란과 역경과 위기가 변해 축복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 목사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신다고 말씀하

셨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성소요 성전으로 알고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한다. 그냥 TV를 시청하는 식으로 말씀이나 듣고 예배를 때워선 안 된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예배가 열납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은 심히 위험스럽다. 형식에 빠지지 않을까, 앞으로 사태가 끝나도 TV를 켜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때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교회를 출입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혼자 믿겠다는 가나안 신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행통하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위로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로하신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전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며 “어떤 이는 술로, 어떤 이는 인터넷 채팅으로, 도박으로 위로받으려 한다. 그런 위로는 순간적이고 잠깐의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인생을 패망으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다준다”며 “참으로 위로해주시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열심히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예루살렘에서 영광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위기가 변해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경호 기자

김양재 목사 “우리들교회에 신천지 직간접적 연관자가 60명”

15일 설교 도중 언급…“가정 파괴하는 건 어떤 경우든 사이비”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가 지난 15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우리 교회에 신천지에 연관된 분이 60명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우리들교회 유튜브 캡처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가 “우리 교회에 신천지에 연관된 분이 60명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김 목사는 15일 주일예배 설교 도중 이 같이 밝혔다.

김 목사는 이날 설교 도중 신천지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김 목사는 “신천지를 못 믿게 하면 가출하고 이혼하고 이만희를 위해 생명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사이비”라며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든 사이비”라고 했다.

김 목사는 “지난주에 신천지에서 나온 청년이 간증했다. 여자친구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 여자 친구가 바람잡이 연기자였던 것”이라며 “미혹해서 복음방과 센터까지 갔는데 양육이 끝나니(여자친구가) 영의 엄마라고 하며 딱 선을 끊었다더라. 또 자신의 할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은 거기(신천지)에서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아무도 오지도 않고 신경써 주지도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디도서 말씀에 이단에 속

한 자는 한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고 했다. 무서운 영이 있어 두세 번 훈계하고 멀리하지 않으면 팔려 들어간다. 복음방과 센터까지 가면 나올 자가 없다”며 “세뇌되어 있는 게 문제다. 못 나와도 24만 3천이 다 같이 지옥에 가면 같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 왜 신천지에서 못 나오나. 해석할 수 없는 이단의 영이 있다”고 했다.

그는 “큐티선교회 간사인 한 자매가 엄마가 신천지인데 나라에서 검사하라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그 자매를 자가격리시켰다”며 “엄마가 자기 때문에 딸이 사실에도 못 나가게 되니 너무 미안해서 신천지를 나오겠다고 했는데, 주일예배 시간이 되니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다고 했다. 복음을 못 듣도록 목가가 씌어 있다. 기가막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우리들교회에 신천지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이 60명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자꾸 드러나서 감사하다. 성도님들은 이들을 기도로 돕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저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대)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대)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저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피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주 오전 10:20

서보현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사색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믿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일린예배 오후 1:30
이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라(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림회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F.(310) 530-8400/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분단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분단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단
KM전야예배 오후 2:00 분단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단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분단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묘영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O. 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모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이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애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침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토,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지 예배 매일 4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벤틀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애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으로 열방을 열자는 새생명체 ALL IN Jesus 4대 20 2월 2주 2주 2주 2주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새음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아침예배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일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목요일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wbc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8부 5부)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상사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moor.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중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장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6:30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자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하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릿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 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中, 코로나19 이용해 기독교 박해... 온라인 예배도 금지”



한국 VOM, 신앙 이유로 구금된 목회자들 지지 서명 운동

한국 순교자의소리(한국 VOM, 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17일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규제 법안으로 상당 기간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요즘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만 들려오니까 중국 정부가 기독교 박해를 보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당국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독교 탄압을 위한 새로운 구실과 방법으로 이용 중”이라며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예배를 인터넷 생중계로 전환한 교회들이 많은 반면, 중국은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 예배 생중계를 계속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력한 탄압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지만, 중국 교회가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면서 “2018년 9월, 439명의 중국 목사님들이 신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 선언문을 작성한 청두시 이른비언약교회 왕이(Wang Yi) 목사는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바라는 바에 자신과 교회가 관여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이 선언서에서 서명한 목사 다수가 투옥되어 있거나 박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선언문을 한국어와 중국어와 러시아어와 영어로 번역해서 한국 VOM 웹사이트 www.chinadeclaration.com에 올렸다. 그리고 한국과 전 세계 교회에 서명 동참을 요청해 왔다. 이를 통해 그들과 함께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전 세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과 그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떼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중국의 형제·자매들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중국 산둥성(Shandong Province)의 지방정부는 온라인 예배 실황 중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교회 탄압의 극히 일부로 알려져 있다.

작년 여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온라인 청원의 서명자 수는 3,561명이다. 한국 VOM은 4,390명의 서명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신앙선언문에 원래 서명했던 중국 교회 목사 439명 1명당 10명의 지지자 서명을 확보한다는 의미이다. 한국 VOM은 오는 4월, 이 청원서를 서울 주재 중국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중국 국가종교사무국(State Administration of Religious Affairs)은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 조치(Administrative Measures for Religious Groups)’라는 제목으로 제13호 명령(Order 13)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발효됐다.

현숙 폴리 대표는 “우리가 중국 대사관에 전달할 청원서에는 성을 뺀 이름만 제출된다. 성을 제외한 서명자 이름, 서명 날짜, 유효한 서명이라는 한국 VOM의 확인만 들어간다. 이는 중국 교회와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지지하기 위한 안전하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요즘 뿐 아니라 공산당 박해라는 ‘전염병’이 계속 도는 한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 명령 제17조는 “종교단체는 중국의 법률과 규제와 규칙 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종교 인사와 신자들에게 전파해야 하며,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사회주의 제도를 지속시켜야 하며,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2018년 2월부터 강

영국복음연맹, 코로나19 직면한 교회에 ‘약자 보호와 혁신’ 주문

기도, 돌봄, 대화, 권한 부여, 혁신, 대응 등 6가지 영역 제시



영국복음연맹(EA) 갈빈 키버 CEO. ©EA

영국복음연맹(UK Evangelical Alliance, EA)은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혁신을 주문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

드뱅크가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EA는 교회들에게 추가적인 기부처 마련이나 사회적 돌봄 사역을 위한 봉사자들 모집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EA는 세계적 유행병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 교회들이 고려해야 할 6가지 영역을 제시했다. 이 6가지 영역은 기도, 돌봄, 대화, 권한 부여, 혁신, 대응이다. 무엇보다 최전선에서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다.

아울러 교회들이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집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도 여전히 교회의 의미 있는 구성원임을 느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조언했다.

교회들에게는 특별한 변화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가격리 중이거나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의 형식을 갖출 것을 권면했다.

EA는 온라인 예배 또는 소규모 그룹 모임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때, 교회가 기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조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라. 온라인을 통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찾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잘 적용되는 부분들은 공유해 달라”고 했다.

또 소외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푸

강혜진 기자

코로나 사태와 예배

히브리서 10:23-25

지난 역사를 뒤돌아 보면 1918년 가을 미국 서부전선에 주둔했던 미군부대에 유행성 인플루엔자가 창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통계에 따르면 약 4만4000명의 미군들이 사망했는데 그 인플루엔자가 바로 스페인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페인 독감은 몇 개월만에 2000만명을 죽음으로 몰고갈 정도로 공포에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데 이와같은 일들은 멈추지 않고 2003년에는 중국 남부에서 발병한 사스(SARS)로 770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009년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플루로 세계 28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또 2014년에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로 아프리카에서만 4800명이 사망하게 되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에 들어서면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우한시는 봉쇄됐지만 바이러스는 중국 본토는 물론 전 세계가 영향권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현재 미국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것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시대를 대변하듯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1세기는 전염병의 시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듣기 좋은 말은 아니며 환경과 파괴가 가속화되고 사람의 집단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해 보아야 하는 부분은 지금의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전염병도 그렇지만 요즘 교회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예배와 모임 그리고 심지어 선교에 까지 변형을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가장 많은 고민이 있다면 “인터넷 예배”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일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의 “인터넷 예배”가 일시적인 대안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편리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볼수 있는가 혹은 이처럼 편리한 예배를 맞본 신자들의 반응을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본인의 의견을 말한다면 일시적 대중예배 중단과 온라인 전환에 관하여 목회자와 성도의 한 사람으로써 부정적 결심도 염려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닥칠 더 큰 환란과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시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배학자들 모두의 견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예배학자들은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의 경우 공중예배의 일시적 폐쇄와 인터넷 예배 대체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본다. 또한 성경에서도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가 박해를 받았을때 바벨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고, 또 신약시대에도 초대교회에 심한 핍박이 가해지자 성도들이 숨어서 가정이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먼 훗날 사탄의 최후발악으로 세상이 변하여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혜롭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평적 차원에서 타자와 관계성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전인적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독자적으로 지금의 상황과 정부로부터 내려진 행정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만의 주장을 내세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지역사회와 가정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행위는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적인 불연속적 행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공간 안에서 우리가 미쳐야 하는 영향력을 포함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시대적 변화와 환경의 악조건이 하나님앞에 우리를 다시 준비할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로운 자녀교육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으로 숨 가쁘게 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수시로 전해지는 업데이트, 관련 소식 및 통계자료는 뉴스란 그물에 대충이 잡혀있게 만든다. 그러나, 이럴수록 조금 더 침착히 그리고 통찰력을 갖고 뉴스를 걸러내고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보통 바이러스를 다룰 때 치사율(mortality rate)과 전염률(transmission rate)을 따지는데, 이들은 보통 상대적이다. 즉, H1N1의 경우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률이 낮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해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률이 높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와 H1N1은 둘 다 심각한 문제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둘째, 종전의 전염병(메르스, 사스, 에볼라, 인플루엔자, 등)과 비교해보면 현재 접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좀 더 차분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적어도 20세기에 일어났던 흡사한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고, 너무 소셜 미디어만 의지하지 않는다면 공포에 떨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소식을 누가 제작했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자료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식을 제작했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얻은 소식이나 뉴스를 함부로 배포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팔로워가 많은 공인과 인플루언서(influencer)는 더욱 자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 미디어도 너무 정치성향을 토대로 편파적인 보도를 전하고 있기에 조심스럽게, 비교하며 진실과 허위를 걸러내야 한다. 진보측(민주당/사회주의 지지자)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medicare for all” 즉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보험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가 뚜렷이 보인다. 그래서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이 기회에 기존의 보험시스템을 미흡하고 불공평한 자본주의의 잔재로 몰아가고 있다. 이와 반면에 보수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며, 앞서 설명한 진보 측의 움직임을 사회주의 제도로 향한 발걸음으로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진실은 양측의 주장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본다.

넷째, 통계 자료를 간파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월 15일까지 한국은 거의 25만 명에게 테스트를 적용해 약 8,000의 감염자를 찾아냈고, 그중 사망자는 총 72명으로 사망률이 0.9%였다. 미국의 경우 3월 16일 현재 총 4165 명이 감염되었고, 그중 사망자는 72명, 즉 사망률이 1.7%로 집계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앞으로 테스트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사망률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인구가 5천2백만 명이지만 미국의 총인구는 3억 2천 7백만 명, 즉 6배가 넘는다. 그렇다면, 총 사망자 대 총인구 비율을 계산하면 한국 내 사망자가 미국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이다. 허나, 미디어는 선정적인 내용을 전하는데 올-인을 해서인지 통계자료를 왜곡해 한국은 문제를 잘 다루고 있고,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통계자료 분별력이 꼭 필요하다.

다섯째, 대중은 두려움에 떨며 만사에 위축되어 있다. 필자의 사여터가 학교이기에 다수의 부모가 불안과 초조로 인해 위축되어있음을 잘

알고 있다. 물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기에 부모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잉보호와 광적인 사제기는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을 더 위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지혜로운 부모는 이럴 때일수록 아이가 안정감을 갖도록 좀 더 신중히, 천천히, 여유있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위기를 전환점으로 삼아야겠다. 필자가 섬기는 새언약학교(New Covenant Academy)는 15년 전부터 온라인 교재 및 수업을 학교에서 사용해 왔다. 미래지향적인 학교의 교육 방침과 계속 변하는 학생들의 필요 및 요구를 잘 반영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정을 투자해 이런 교육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 놓았다.

보통 온라인 수업 및 강의는 대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레벨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육의 판이 바뀔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는데, 기존의 교육 방식은 만족스럽게 대응할 수 없다. 이런면에 크리스찬 학교로서 앞서가는 교육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끝으로, “This, too, will come to pass”란 말을 기억하자. 한국어론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란 뜻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도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세계적 유행병(pandemic)”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란 말이다. 특히, 기독교의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 및 통치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두려워할 필요없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죽던지 살던지 주를 위해 하고(롬 14:8) 믿음을 버리지 않는(합 3:17; 단 3:18) 신앙의 자세를 세상에 보여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겠다.

담임목사 청빙

달라스 베다니 장로 교회는 (1986년 설립) 복음연약 장로 교단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소속 교회로 복음전파와 다음세대로의 믿음 전승을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번 담임목사님의 은퇴(25년 시무)로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수고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실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청빙 자격 (자격 조건)

1. 장로교 및 개혁 신학교 M. Div 졸업자.
2. ECO 교단 소속 혹은 가입에 문제 없는 분.
3. 이중 언어 소통이 가능한 분. (한국어, 영어)
4.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분
5.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

제출 서류 (구비 서류)

1. 교회 소정 양식에 따른 이력서, 목회 계획서 (bethanydallas.org/담임목사청빙공고)
2. 학위증 사본 (대학교, 신학 대학원 M. Div. 최종 학력)
3. 목사 안수증 사본
4. 최근 설교 2편 (mp3 or youtube link)
5. 추천서 2부 이상 (추천인이 청빙위원회에 직접 email 혹은 우편 발송)
6. 자기 소개서, 사모님 자기 소개서

제출 기간

2020년 4월 30일 까지이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후 1차 대상자에만 연락드립니다.

제출처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bethanync2020@gmail.com)
*문의 사항은 e-mail로만 문의해 주세요.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4020 Marchant Blvd, Carrollton TX 75010 Tel.972-395-9200
bethanydallas.org bethanync2020@gmail.com

The Cornerstone Community Church in Marina, CA, is looking for a Youth/EM pastor with a pioneering spirit to build a multi-ethnic community. Though the congregation is small in number, it is made up of dedicated adults and adolescents who are passionate about God and the church. CCC was planted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Korean First Presbyterian Church (mkfpc.org) to provide Christian witness and service in the area.

1. RESPONSIBILITIES INCLUDE:

1. Lead Sunday worship, including preaching, and provide weekly Bible studies
2. Oversee administration of the Youth Ministry and Sunday School
3. Plan, execute, and evaluate ministry events/programs throughout the year
4. Coordinate EM ministry with Korean ministry's vision and goals

2. QUALIFICATIONS:

1. Master of Divinity or equivalent from an accredited seminary
2. Experience in Youth/English Ministry
3. Possess a strong calling to shepherd a young generation
4. Fluent in both spoken and written English (Korean is preferred)

3. APPLICATION REQUIREMENTS:

1. Resume including photo of self + family (if married)
2. Statement of philosophy and theology of ministry (one page)
3. Personal testimony: faith journey and the call into ministry (two pages)
4. Two sermons
5. Two ministry references with contact information

4. Salary & Benefits:

1. Salary range is \$45,000-55,000, depending on experience and family circumstances
2. Benefits are included with health insurance
3. Two weeks of paid time off per year (one week during first year), and one conference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per year

5. Interested applicants should email all application requirements to Rev. K. Rhee (woong101@gmail.com)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솔즈베리(Salisbury)시에 위치한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PCUSA)는 2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 격

- 현재 PCUSA 교단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하신 분
- 정규 신학교 이상 졸업하신 분
-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이중언어(한/영)에 불편이 없으신 분
- 목회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 (담임목사, 부목사 경력 포함)

제출서류

- 한글 이력서 1부(사진 포함)
- 목회 비전과 신앙고백서
- PCUSA MIF양식 (pcusa.org)
- 신학교 졸업 증명서
- 본인 및 가족 소개서(가족사진 포함)
- 목사 안수 증명서
- 추천서 2부(목사 1명, 장로 1명)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 2편(CD/DVD/USB 또는 동영상 링크 주소)
- 최근 3주간 주보

제 출 처

- 제출 마감일: 2020년 4월 18일(토)
- 보내실 곳: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장
Attn: Eld. Nakin Sung (성낙인 장로)
2420 N. Salisbury Blvd. #2, Salisbury, MD 21801

기 타

- 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해 드리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 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 의: 청빙위원장 성낙인 장로
Email: salisbury5183@gmail.com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주일제전
 교회보고
 마그네틱 메모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옵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치과 의사 이우희
이동희 원장



교회행사, 수련회, 단체를 위한
맞춤형 후드 티셔츠

원하시는 문구와 로고를 넣어서
 우리교회만의 후드 티셔츠를
 예쁘게 제작해보세요!

WHEN WE PRAY

그레이
 블랙
 네이비
 차콜

할인 이벤트

25개	\$ 19.5 (개당)	only \$15.99 (개당)
50개	\$ 18.5 (개당)	
100개	\$ 17.5 (개당)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신학적·목회적 고찰(2)

[특별기고] 목사아카데미 대표 신호섭 목사

4. 시급히 재정립되어야 할 교회론
그렇다면, 도대체 초대형교회들은 확전자 발생도 없는데 왜 주일 공예배를 취소하고 있는가? 주일예배를 취소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확진자가 자기 교회에서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결과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를 극도로 꺼려하는 것이다. 둘째는, 교회와 성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국가 시책에 협조하기 위함이다.

둘째, 셋째보다는 현실적으로 첫째가 가장 커 보인다. 이유는 이단 사이버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교회를 향하지도 모르는 그런 지탄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큰 이유는 그들이 교회 내에 잠입해 있는 또는 잠입할지 모르는 신천지 교인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가족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며(필립 그레이엄 라이크, 개혁주의 예배학, 125.),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인데 가족이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교인들이 이런 상황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와 바쁘시니까 이해한다는 것이다. 초대형교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은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대형교회들이 교회 연수원이나 수련원을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 제공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는다. 하지만 대형교회들은 차제에 교회론을 시급히 재정립해야 한다. 목회역량에 따라 몇 천 명 성도를 목양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성경적 교회론의 기초 하에서 그래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들은 회집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재난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예배를 취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5. 국가 정부와 이단 신천지

신천지(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는 사이버 이단이며, 총회장이라 불리는 이만희는 이단 종파의 교주이다. 정부의 실책을 완전히 신천지에게만 돌려서는 안 되겠지만, 확실히 이번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은 신천지이다.

신천지는 기성교회에 추수꾼들을 잠입시켜 산 율기(교회 무너뜨리기) 작업을 통해 전통 교회를

와해시키는 이단 사이버이다. 그들은 이를 '모락 전도'라 부르고, 모락을 위해서는 거짓말, 거짓증언, 사기, 우연을 가장한 상황 연출도 불사한다. 한마디로 거짓, 거짓으로 가득 찬 집단이다.

따라서 국가 정부는 이러한 이단을 척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국가 위정자는 하나님의 진리가 순결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며, 모든 신성모독과 이단이 억제되고 ...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항).

하나님께서서는 "국가 위정자들에게 칼의 권세를 주셔서 선한 사람들은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한 사람들은 징벌하게 하셨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1항). 국가 정부는 국민과 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신천지를 수사하여 해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압수수색까지 단행해야 한다.

정부와 검찰은 신천지의 유혹에 빠진 교인들과 신천지의 지도자들을 구분하여 지도자들에게는 가혹하고도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기존 교회뿐 아니라 내각, 국회, 정당,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언론, 대학, 신학교, 등등 사회구석구석에 속속들이 잠입해 있는 신천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정부와 교회와 교단은 그들을 사람으로 수용하고 재교육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6. 국가 정부와 교회의 관계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감염 전수 조사가 거의 끝났다. 초중고는 3주 연기되었고 대학은 3월 말까지 개강이 연기되었다. 집회와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자체와 보건당국이 적지 않은 교회에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 구설수에 올랐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금지 협조 요청이다. 위반 시 3백만 원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와 집회를 중지해 달라는 동사무소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항의하자 공문을 잘못 보냈으며, 수정된 사과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국가 위정자는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과 천국 열쇠의 권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교분리의 원리이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1항).

교회는 정부가 모임을 강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더욱이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은 교통의 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기자회견이 지난 2일 오후 3시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송경호 기자

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안을 다루고 있다.

만일 교회의 모임을 중지시키려면, 교통이 통제되어야 하고 마트와 영화관과 대형 유흥시설 등이 폐쇄돼야 한다. 지난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교회 방역을 마치고 잠시 스타벅스에 들린 적이 있다. 스타벅스는 마치 바이러스 청정 지역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강남 이태원 흥대의 클럽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개나 쥐"라는 전광판과 함께 밀집된 좁은 공간에서 젊은 친구들이 몸을 부비고 있다 한다.

교회가 선제적으로 술선수범하여 거의 모든 주중 모임을 중지하고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무시하고 예배 중지를 권유하고 종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문으로 보낸다면, 마치 이는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절제 있는 교회의 모임을 권유할 수 있지만, 교회의 예배를 중지시킬 권한은 결코 없다. 보스와 윌리엄슨은 대요리문답 118문답 강해에서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공무원들과 국가 공직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안식일을 주의 깊게 지켜야 하며 민법적이며 사법적인 적절한 조치를 통해 그 거룩성을 보호하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안식일 준수가 방해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법과 정부의 요구를 반대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해설한다(대요리문답 강해, 보스/ 윌리엄슨, p. 441).

그들의 직무는 "시민의 복지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역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고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를 없애고 방지"하는 것이다(벨직 신앙고백서 36

항, 국가 정부). 아울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금번 바이러스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4항).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고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서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7.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교훈

사실 7번부터 시작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어떤 일도 제1원인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주권적 섭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심지어 제2원인들조차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1, 2항; 5장 1, 2항).

그렇다면 금번 바이러스 사태 역시 하나님의 섭리 하에 벌어지는 일이다.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작정과 섭리에는 뜻이 있다. 우리는 종결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 이 전염병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사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 불순종, 우상숭배, 교만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해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별레가 먹어 죽었다(행 12:23). 반면 욥의 경우나 실로암 망대의 사건처럼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과 재난도 있다(욥 1-2장; 눅 13:4).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한결 같이 하나님은 회개를 명하신다.

따라서 필자는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적 허용이라는 관점의 시각에서 전염병 사태를 통해 몇 가지 개인적 교훈을 얻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 이 전염병이 특별한 지역과 대상을 목표로 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죄 아래 있는 인간의 탐욕과 쾌락과 교만의 결과인 것은 분명하기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런 의미에 국한해서 기독교 역사가로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가 그동안 여러 행정조치를 통해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중국 공산당을 향한 경고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이 바이러스가 한국의 경우 우한과 대구와 과천을 잇는 신천지 교인들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천지의 신성모독과 불경함과 이단성을 폭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해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단순히 한 지역이나 한 사건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사태가 주는 엄중한 교훈은 교회를 향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신천지를 향한 비판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경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끝)



신호섭 목사
울곧은교회
목사아카데미 대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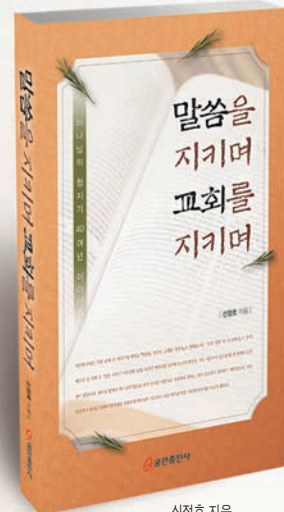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말교회 현상이 가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95년 말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세대교회 담임목사로 사임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가길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회 최우수상, 대한 무디 경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회 최상, 천성문화재단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감사장,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간오의 목양철학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절실한 열정과 많은 독자들에게 전한 감동은 시사하고 있다.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호섭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호남신학대학교, 정호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한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노회장, 총회 총-농어촌 부장,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회 논설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대학교 객원교수, 한남대학교 이.사.한국노회교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골로새서 2:6-15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골로새서는 골로새교회에 이단이 들어와 예수님을 향한 정통한 진리의 복음을 오해하게하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불신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격하시킴으로 믿음이 허물어지게 하는 폐단이 일어나게 되어 이 소식을 들은 사도바울이 골로새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 갖추게 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1. 진리 위에 뿌리 내림

우리는 믿음 생활 하면서도 이 죄악 세상을 배경으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땅을 딛고 불의와 죄악에 휩쓸리며 시달리며 살 수 밖에 없는데 교회 주변에, 또 교회 안에 까지 이단이 침투해서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영혼을 지옥 길에 떨어지게 하려는 마귀적 속임수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이 진리 위에 바로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이단에 휩쓸려 지옥 길에 빠져들고, 그런 과정에서 믿음이 싹튼 사람일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차, 내가 이리다간 자칫하면 지옥 가서 불꽃에 시달리겠구나!' 하며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 나라도 진짜로 믿어야지 해서 신앙이 회개하고 바로 서는 사람들도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관하시는 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것이 "주"라는 뜻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굳건해서 항상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하시고 붙들어 쓰심을 따라 땅에 살아도 '나는 하나님 모시고 그 은혜로 살며 하늘 소망의 신령한 기쁨으로 산다.' 이렇게 살아야 감사와 찬송이 그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능 학문을 좇음으로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철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로소피아'라고 하는데, 헬라어 '필레오'(친구간의 사랑)와 '소피아'(지혜)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장 14절까지 보면 지혜를 두 가지로 확실히 구별하고 있는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하여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보게도 하시고, 예수

님의 대속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골로새교회에 이런 영적인 도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예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부활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며, 성령 받았던 사람들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영적인 구원의 소망을 목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목회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갈 믿음, 그 자격 갖추게 해 주려고 애간장 태우며 몸부림치는데, 이단에게 쉽게 어울려서 지옥 길로 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바울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2.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짐

그 철학은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를 친구삼아 의지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좇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신의 성품이 육체로 충만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 받아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임 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보통사람과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동정 탄생하심으로 유일하게 아담의 원죄를 피하여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그의 육체 속에 충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 기사와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쓰신 증거라고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죄를 육신으로 대신 벌 받아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어야 대속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신성으로 충만하셨듯이 우리도 대속의 은혜를 입어 회개하고 거듭나

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나니까, 나도 예수님과 같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고, 물속에 잠기는 세례(침례)를 받음으로 옛 사람은 죽었다는 표를 받았습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져서 성령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을 되살려서,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아들과 딸의 자격으로 세상을 살다가 하늘나라를 물려주실 상속자로 천국을 차지하러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육체에 행한 할례는 신체의 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 육체의 죄악을 일삼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3. 함께 일으키심을 받음

12절을 보면 "너희가 세세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즉,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

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이단 사실이 그럴싸하게 미혹하여도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휩쓸리거나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있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때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용서 받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보혜사 성령을 청구하면, 그 회개가 진실했을 때 죄를 용서하시고 보혜사를 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시키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도, 내 믿음이 범죄 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율타리삼아 지키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힘들고 더 어렵게 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지극 정성으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계속 살리시면서 영혼구원의 성과를 위하여 계속 붙들어서 쉼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단 사실이 감언이설로 그럴싸하게 미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습니다.'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크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꾼으로 쓰실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 AM1310 기쁜소리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미국 신문 설교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바이러스를 죽이는 마스크가 왔다!

VK마스크 시판

특수 발효소금의 초강력 필터 개발! 마스크는 필터링이 생명!

VK 소금필터의 특징

바하만 청정지역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이어 진흙뻘에 1년간 숙성시킨후 4년간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자연산 천연염으로 특수코팅!
 중금속 0%! 간수0%! 미세플라스틱0%! 85가지 미네랄 천연염!
 특수소금필터는 호흡기를 통해 마스크에 습도가 생기면 소금분자들이 분자 분해를 일으켜 호흡기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호해준다.
 일반 마스크는 습도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균이 발생되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지만 VK 마스크의 천연염 특수 패드는 멸균과 동시에 입안에 냄새도 제거해 준다.
 VKM 소금필터는 특수 코팅되어 3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1회 찬물에 1-2분 세척가능)
 마스크 필터에는 특수소금이 코팅되어있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접근하면 소금의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사멸된 마스크는 균이살지 못하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U.S. Patent Serial No.: 88819662



1개 \$20

1인당 10개 한정
3주 이상 사용가능

특수 천연염 필터 마스크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판매처



VK 마스크 특수필터는 코셔미네랄 천연염 소금연구소 제공.
KoshreMineralSeaSalt.com

Space Eum Cafe 213.386.3896
3020 Wilshire Blvd. #100 213.605.2772
Los Angeles, CA 90010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100% HANDMADE MADE IN USA



VKMask.com
Virus Killer Mask
VKMask, Inc.

세계각국 및 지역 대리점 이메일로 접수: info@vkmask.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개강일자: 4월 2일

*COVID-19으로인하여 개강일자가 연기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본교 지원시 특전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나 교역학 석사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월 일 개강

등록상담전화

**CBD Hemp Oil 제품으로
대한민국 식약청 최초 수입승인 제품**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햄프햄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햄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물!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2달분 1,800 환
\$25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CBD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카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햄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채소를 통해서는 섭취가 어려운 요오드는 일일권장 섭취량의 약 8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2 장에 좋다

햄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주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4 당뇨에 좋다

햄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간에 좋다

햄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테인 성분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6 항암에 좋다

햄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햄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7 식이섬유가 많다

햄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린 성분이 장내 중성지방을 수용성 지방으로 바꾸어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8 칼슘이 많다

햄초에는 100g 당 칼슘 235mg, 칼륨 650mg, 철분 40mg 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히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 보고서 '놀라운 햄초의 효능' 에 항염증, 항균, 감작성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코셔미네랄 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황소금, 맛소금)
나트륨 Na : Cl	나트륨 (Na)
칼륨 K :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슘 Ca : Cl	
마그네슘 Mg : Cl	

중금속
 간수

515g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햄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햄초! 바하햄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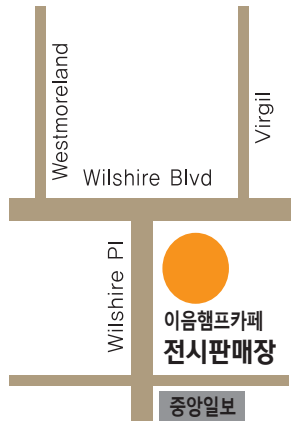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30 +Tax



☎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햄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목회자
50%
할인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hempplusorder@gmail.com

올가년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물라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합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동급향상과 환자의 악몽,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로 경험하세요

CBD BAJA HAMCHO Inc.
www.hempbiousa.com hempbiousa@gmail.com

☎ (213)386-3896, (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